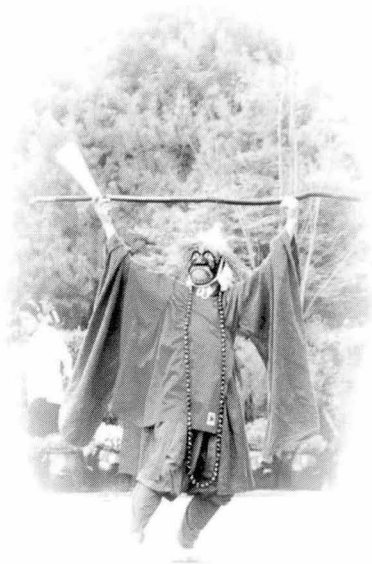


제 1 장



탈춤에 관하여



1. 탈이란 무엇인가?

가면(假面)을 우리말로 [탈] 또는 [탈바가지]라고 하고, 가면무(舞)를 [탈춤], 가면극(劇)은 [탈놀이], 가면극무대(舞臺)는 [탈판], 가면극연희자(演戲者)를 [탈꾼]이라고 부른다. 가면에 대한 한자표기로는 [面, 面具, 假面, 代面, 大面, 假頭, 假首] 등이 있고, 우리말로로는 [광대, 초라니, 탈, 탈박, 탈바가지, 띠낫] 등으로 불러 왔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탈]이란 말이 가면을 나타내는 우리말로 쓰여지고 있다. 탈의 뜻뜻에는 1) 가면(假面) 2) 사고(災厄) 3) 병(病) 등의 뜻이 있다.

2. 한국 탈춤의 지역적 분포

1) 서울, 경기지방의 산대놀이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연희되어 온 산대놀이 계통의 탈춤으로 녹번, 애오개, 노량진, 구파발, 송파, 퇴계원, 양주, 사직골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 특성은 씩씩한 면과 부드러운 면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으며, 섬세한 중부 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춤사위가 매우 분화되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산대놀이의 가면은 황해도 해서탈춤의 가면이나 경상남도 야류·오광대의 가면과 차이를 보인다. 산대놀이가면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고, 비교적 아기자기하고 손질이 많이 가해져서 기교적이고 다양하며, 가면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야류와 오광대의 가면은 선이 굵고 투박하며, 생김새가 단순하면서도 개성이 강하고, 말뚝이가면은 모두 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산대놀이가면은 해서탈춤과 마찬가지로 중가면이 많이 등장하고, 야류·오광대에는 중가면이 현격히 적다.

본산대놀이의 가면은 원래 나무가면이었는데, 현재는 바가지가면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대놀이의 나무가면에는 “양주군 퇴계원리 산대도감 사용 경복궁 조영당시(楊州郡 退溪院里 山臺都監 使用 景福宮造營當時)”라고 써어 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한 것이

1865년 4월이므로, 명기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가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퇴계원에 산대놀이패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궁중의 가면극에 동원되어 사용하던 가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최상수가 1930년대 후반에 수집한 구파발본산대놀이의 가면이 소장되어 있는데, 나무가면이다. 나무가면은 한 번 만들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면극을 자주 공연해야 했던 본산대놀이는 나무가면을 사용했을 것이다.

2) 해서(海西)지방의 탈춤

황해도 일대의 가면극을 해서(海西)탈춤이라고 부른다. 흔히 사자춤이라고 불린다. 이 해서탈춤의 분포를 보면 사리원, 봉산을 중심으로 황주와 서쪽 평야 지대인 안악, 재령, 신천, 장연, 송화, 은율 등지의 탈춤과 동남쪽 평야 지대인 기린, 신원, 서흥, 평산, 신막 등지의 탈춤과 해안지대로는 해주, 강령, 웅진, 송림, 추화, 금산, 연백 등지의 탈춤으로 구분된다. 황해도에서는 오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가면극을 초청해 놀았다고 한다.

해서탈춤은 가면, 의상, 춤사위, 대사의 유형으로 보아, 기린, 서흥, 봉산, 재령, 신천, 안악 등지의 가면극을 대표하는 봉산탈춤형과, 웅진, 강령, 해주 등지의 가면극을 대표하는 해주탈춤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봉산탈춤형의 가면은 기본 재료인 종이를 잘 활용해 형태나 색채면에서 조형감각이 뛰어나며, 팔뚝중가면과 취발이가면은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型)으로 요철(凹凸) 굴곡이 심하다. 그러나 해주탈춤형은 사실적인 인물가면으로 요철이나 혹이 없고 눈망울만 크다. 봉산탈춤형의 기본 의상은 좌청(左靑), 우홍(右紅)의 원동에 초록색 소매를 단 등거리를 나삼(羅衫) 위에 입은 후 붉고 푸른 띠를 매는 것이다. 그러나 해주탈춤형은 주로 회색의 첩배 장삼(長衫)을 입는데, 소매는 팔을 내리면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 봉산탈춤형의 춤사위는 장삼 소매를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汗衫)을 경쾌하게 휘뿌리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깨끼춤이 기본이다. 그러나 해주탈춤형의 춤사위는 느린 사위로 긴소매를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동작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문화정책에 의해 해서탈춤의 전승을 중단시켰다가, 1988년 무렵부터 다시 봉산탈춤을 복원해 공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는 월남한 놀이꾼들에 의해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이 계속 전승되어 왔다.

해서탈춤에는 산대놀이와 같이 중가면이 많고, 비교적 아기자기하게 손질이 많이 가해져서 기교적이고 다양하며, 가면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다. 가면의 형태는 원형 보다는 사각형의 가면이 많은 편이다. 가면의 재료는 종이를 많이 쓴다. 해서탈춤에서는 가면극이 끝나면 가면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다음해에는 다시 만들어 사용했다.

3) 경상남도의 야류(野遊)와 오광대(五廣大)

경남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을 야류(野遊)라고 부르고, 서쪽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을 오광대(五廣大)라고 부른다. 야류는 들놀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래, 수영, 부산진 등지에서 전승되었다. 오광대는 다섯 광대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하는데, 초계, 신반, 통영, 고성, 가산, 마산, 진동, 가락, 거제, 진주, 산청, 학산, 도동, 서구, 남구 등지에서 전승되었다.

야류와 오광대의 발생지는 낙동강변인 초계 밤마리(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라고 전한다. 밤마리의 시장에서 대광대패라는 유랑예인집단이, 남사당의 덧뵈기와 같이, 여러 공연물 가운데 하나로 수시로 가면극을 놀았다. 밤마리는 낙동강변의 수로요지(水路要地)로서 어염상선(魚鹽商船)이 정박할 수 있는 하항시(河港市)였기 때문에, 합천, 의령, 초계, 고령, 안동 그리고 오남지방에서도 왔다고 한다. 6월에는 대마(大麻)의 집산지로서 난장을 이루었으므로 큰 장터가 형성되어 약 삼백 호의 큰 마을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시장에서 상인들의 비호 아래 유랑광대들이 모여들어 놀이판을 벌였던 것이다.

송석하는 1930년대에 현지조사를 통해 야류와 오광대의 전파경로를 밝혔다. 수영야류(水營야류)는 1933년으로부터 약 60년 전(1870년 무렵)에 초계에 가서 있던 수영사람이 보고 와서 창설한 것이고 동래야류(東來野遊)는 수영야류를 본떠서 역시 1870년 무렵 시작되었으며, 김해오광대(金海五廣大)는 1890년 무렵 동래야류를 참고해 시작했다고 한다. 창원오광대(昌原五廣大)는 1890년 무렵 초계 밤마리 대광대패의 가면극을 배워 온 것이고,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는 1900년 무렵 창원오광대를 본떠 만든 것이다. 진주오광대(晉州五廣大)는 1880년 무렵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新反里) 대광대

패의 가면극을 배워 온 것이라고 한다.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는 창원과 통영오광대의 영향 아래 1920년대에 생겨난 듯하고,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는 진주오광대를 배워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야류와 오광대가 전승되고 있었으나 모두 단절되었다가, 현재는 동래야류, 수영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만이 1960년부터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야류와 오광대는 해서탈춤이나 산대놀이와는 다른 유형의 독자성과 고풍스러운 향토성을 짙게 보여준다. 그리고 가면극 전체가 말뚝이놀이로 인식될 정도로 말뚝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야류와 오광대의 춤사위는 경남의 향토적 민속춤인 덧뵈기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산대놀이와 해서탈춤의 가면이 인간적이라면, 야류와 오광대의 가면은 주술적이다. 야류와 오광대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말뚝이가면, 상상의 괴물인 영노와 비비가면, 얼굴이 문드러진 문둥이가면, 병신의 모습이 훨씬 강화된 양반가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야류와 오광대의 가면은 선이 굵고 투박하기 때문에, 가면의 모습이 단순하면서도 풍자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유난히 큰 말뚝이가면은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항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코를 남성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뜨린 것도 같은 동기이다.

야류와 오광대에서는 양반가면을 언청이가면뿐만 아니라, 개털로 얼굴을 덮은 모양 반탈, 얼굴의 반쪽은 빨간색이고 나머지 반쪽은 흰색인 홍백탈, 코와 얼굴이 비뚤어진 삐뚜르미탈, 얼굴 전체가 검은색인 흑탈, 얼굴 전면에 천연두 흔적이 있는 곰보탈인 손님탈 등 산대놀이와 해서탈춤에 비해 훨씬 비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둥이과장에 나오는 문둥이도 양반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는 지배층인 양반의 위선과 비리를 폭로·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표현한 것이다.

야류와 오광대의 또 다른 특징은 산대놀이나 해서탈춤과는 달리, 중가면이 전혀 없거나 중가면이 등장해도 그 수가 현격히 적다는 점이다.

4) 경상북도의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

로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하회리에 전수관을 두고 있다.

하회의 가면극은 마을극의 일종인 별신극을 거행할 때 놀았다. 별신극에서 가면극을 놀았던 곳은 하회의 이웃마을인 병산이 있다. 그 외에 경북 예천의 청단놀음, 경북 경산의 자인팔광대놀이, 강원도 강릉의 관노가면극 등이 마을극에서 연행된 가면극이다.

하회별신극은 1928년 이후 전승이 중단되었고, 병산별신극도 비슷한 시기에 중단되었다. 그런데 1928년 하회별신극 때 가면극에서 각지역을 맡았던 이창희(李昌熙, 1913년생) 옹이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면극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별신극은 보통 십 년에 한 번씩 신탁(神託)에 의해 임시로 행해지는 큰 규모의 서낭굿이다. 하회에서는 매년 정월 15일과 4월 8일에 평상제(平常祭)를 지내다가, 부정기적으로 별신극을 거행했다. 하회리의 서낭신은 ‘무진생 서낭님’으로 열일곱 살의 처녀인 의성 김씨라고 하고, 혹은 열다섯 살에 과부가 된 서낭신으로 동네 삼신의 며느리 신이라고도 전한다.

별신극을 거행하기 전해의 음력 12월 15일에 신의 뜻을 물어 별신극이 결정되면, 12월 29일 마을 대표들이 동사(洞舍)에 모여 상임 제주인 ‘신주’의 주관 아래 탈놀이꾼 열두 명, 회계를 맡는 유사(有司) 두 명, 가면을 관리하는 청광대, 무동 등을 선정했다. 이들은 음력 12월 30일부터 별신극이 거행되는 정월 15일까지 엄격한 금기 아래 동사에서 함숙하며 연습에 임했다.

가면극에 사용되는 가면은 동사에 보관되어 왔으나, 수십 년 전 동사에 화재가 난 이후로 산주의 집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 가면들은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놀이장소로는 주로 동사 앞마당이 사용되었으나, 삼신당(三神堂) 앞마당도 자주 사용되었다.

하회가면은 한국적인 표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인의 골격과 용모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배역에 따른 등장인물의 개성도 가면에 잘 나타나므로, 한국 나무가면 가운데 걸작으로 꼽힌다. 여러 방증자료에 의하면, 하회가면은 고려시대 중기인 11~12세기까지 소급된다.

5) 강원도의 강릉관노가면극

강릉관노가면극은 원래 강릉단오제 때 행해지던 가면극으로서, 가면극 자체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하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에 속해 있다. 현재 강릉시 유천동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관노(官奴)들에 의해 연희되던 가면극이었다. 옛날에는 음력 5월 1일 팻대를 장식해 세우고 대성황당 앞에서 가면극을 공연하고 다시 약국성황(藥局城隍)과 소성황(素城隍)에서 기도와 연극을 행한 후, 온 길을 되돌아서 성내(城內)의 시장, 전세(田稅), 대동(大同), 사창(司倉)의 여러 관청 앞에서도 성대하게 연희하고, 해질 무렵 신대와 팻대를 받들어 여성황(女城隍)에 이르러 이곳에서도 연희한 후 신대를 대성황당 안에 봉안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한국의 가면극 가운데 유일하게 묵극(默劇)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지방의 가면극은 각 과장의 내용이 서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강릉관노가면극은 각 과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양반과 소매각시를 중심으로 서사적인 내용의 연희가 진행되는 것이다. 양반이 소매각시를 차지해 다정하게 노는데, 시시때때들이 휘방놓아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이를 이간시킨다. 양반은 시시때때들을 쫓아 버린 후에 소매각시를 끌고 와서 시시때때와 놀아났다고 나무란다. 그러면 소매각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양반에게 용서를 빈다. 그래도 양반이 화를 풀지 않자, 소매각시는 양반의 긴 수염에 자기의 목을 매어 자살한다. 이때 장자마리들과 시시때때들이 소매각시의 죽음을 확인하고, 서낭신목을 모시고 와서 빌자 소매각시가 소생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도, 서사적 전개와 함께 강릉관노가면극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때때의 삼각관계는 처용설화의 처용, 처용의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처용이 역신에게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는 것이나, 양반광대가 시시때때에게 소매각시를 뺏겼다가 다시 찾는 것이 구조상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6) 함경남도의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원래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이다. 6·25 당시 월

남한 놀이꾼들은 1960년 8월에 ‘북청사자놀이보존회’를 발족했고, 1967년 북청사자놀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보존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함경도에서는 함남의 북청, 함주, 정평, 영흥, 홍원, 함북의 경성, 명천, 무산, 종성, 경원 등지에서 사자놀이를 놀았다고 한다. 이 중 북청의 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하며 함경도의 사자놀이를 대표한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 산하 열한 개 면과 세 개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15일 밤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다. 북청읍의 사자놀이는 땃벌사자(竹坪里獅子)[여기에는 이촌사자(李村獅子), 중촌사자(中村獅子), 넘은개사자가 속함], 동문(東門)박사자, 후평사자, 북리사자(北里獅子), 당포사자(棠浦獅子) 등이 유명했으며, 그밖에 마을마다 제각기 사자를 꾸며 놀았다.

한편 현재는 북청사자놀음에서 사자가 두 마리 등장하지만, 원래 북청지방에서는 사자가 두 마리 등장하는 마을이 없었다. 모든 마을에서 사자가 한 마리만 등장했다. 그리고 사자놀이의 내용도 현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는 사자 외에 애원성춤, 사당과 거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 승무, 중, 의원, 양반, 꼭쇠 등이 나온다. 이 중 가면을 쓰는 것은 길잡이, 양반, 꼭쇠, 꼬추, 사자뿐이다.

7) 남사당의 덧뵈기

남사당패는 원래 남지들로 구성된 유랑예인집단(流浪藝人集團)이다. 1964년 꼭두각시놀음만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가, 1988년 남사당놀이 전부로 확대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보존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예전에 떠돌이 예인집단은 남사당패를 비롯해 대광대패, 솟대쟁이패, 사당패, 걸립패, 중매구패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남사당패가 첫손에 꼽힌다.

현재까지 남사당패의 은거지로 밝혀진 곳은 경기도 안성, 진위, 충청남도 당진, 회덕, 전라남도 강진, 구례, 경상남도 진양, 남해, 북쪽으로는 황해도 송화, 은율 등지이다. 그곳에서는 놀이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 동면을 겸해서 초입자인 빠리들의 기여를

가르쳤다고 한다.

남사당패는 꼭두쇠(우두머리, 모잡이)를 정점으로 풍물,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가면극), 덜미(꼭두각시놀이) 등 여섯 가지 놀이를 가지고, 일정한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받게 되면 마을의 큰 마당이나 장터에서 밤새워 놀이판을 벌였다.

덧뵈기는 ‘덧(곱)본다’는 뜻으로 가면을 나타낸다. 덧뵈기는 지역 전승의 가면극에 비해 의식성이나 해학성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지역민의 취향과 흥취에 영합했다.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더 우세한 풍자극인데, 제1과장 마당씻이, 제2과장 옴탈잡이, 제3과장 샌님잡이, 제4과장 먹중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가면극에서 반드시 나오는 역사적인 의식무는 마당씻이의 고사문(告祀文)인 ‘비나리’로 대치되어 있다. 옴탈잡이, 샌님잡이, 먹중잡이는 각각 양주별산대놀이의 옴중·먹중놀이, 샌님놀이, 노장춤과 같은 내용이다. 대본도 등장인물과 내용에서 양주별산대놀이와 유사한 점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경기 지역의 본산대놀이의 영향 아래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1959년 무렵 생존하고 있던 여러 놀이꾼에 의하면, 그들의 계보를 1900년대 초 원각사(圓覺寺)에서도 공연한 바 있는 당시의 이름난 탈꾼 이운선(李雲仙)의 후예라 이른다. 이운선은 진위패(振威牌) 남사당의 곱뱅이쇠였는데, 그에게서 가면극을 배운 이경화(덧뵈기쇠)가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를 거점으로 당시 조정까지 출입하던 사당 바우덕이(본명 金岩德)의 힘을 입어 안성 개다리패의 가열들에게 덧뵈기를 가르쳤다고 한다.

3. 산대의 뜻과 산대놀이의 유래

산대라는 용어가 쓰인 최고의 문헌으로는 『고려사』를 들 수 있다. 연등회(燃燈會)의 의식을 기술한 부분에는 “양부(兩府) 악관(樂官) 및 산대악인(山臺樂人)에게는 화주(花酒)를, 시봉군인(侍奉軍人)에게는 주과(酒果)를 배풀어 내린다”는 기록이 있고, 행정부서를 기술한 부분에는 “충렬왕 5년에 정전산대색(庭殿山臺色)을 없애고 연등도감(燃燈

都監)에 병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충렬왕 5년 이후에는 종래 산대를 담당 하던 궁중의 관리들이 연등도감에 병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서 산대가 일찍이 연등회와 관계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前記 연등회의 기술에는 “채산(彩山)을 전정(殿庭)에 설치하며 … 백희잡기(百戲雜伎)가 차례로 전정에 들어가 연달아 연기하기를 마치면 물러나 나가고 다음에 교방(敎坊)의 주악(奏樂) 및 무대(舞隊)의 진퇴(進退)는 모두 일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며, 팔관회(八關會)의 의식을 기술한 부분에는 “태조원년(太祖元年) 11월에 … 채봉(綵棚) 둘을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오장(五丈)여가 되었고 백희가무(百戲歌舞)를 앞에서 보였다. 그 사선악부(四仙樂部)와 용(龍), 봉(鳳), 상(象), 마차(馬車), 선(船) 등은 모두 신라(新羅)의 고사(故事)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상의 기록들을 참고하여 보면, 산대에 관한 대강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산대는 일명 채산(彩山), 채봉(綵棚)이라 하는 가설무대로서 주로 궁중에 설치하였으며, 거기서 백희가무를 연행하였고, 신라 진흥왕 이래의 팔관회와 고려시대의 연등회에서 개연(開演)된 것을 알 수 있다. 산과 같이 높은 무대, 비단으로 장식된 다락무대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인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산대색 혹은 연등도감이라는, 관리나 관청에서 산대놀이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음도 판명된다.

고려시대 때도 국가제전(國家祭典)의 큰 행사로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를 들 수 있다.

상원(上元)에 행하던 연등회(나중에는 二月 연등으로도 되었다)는 불사(佛事)의 제전(祭典)이요, 중동(仲冬)에 행하던 팔관회는 토속신(土俗神)에 대한 제전으로 그 대상이 다를 뿐 양자를 그 의식절차면(儀式節次面)에서 보면 다 같이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어 등불을 찬란히 밝히고 채봉을 설치하고, 주과(酒果)와 음악, 가무백희(歌舞百戲)로 대축연(大祝宴)을 베풀고 제불(諸佛)과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축원하는 제전(祭典)이었다. 요컨대 고려시대까지의 산대놀이는 중국연희(演戲)의 영향을 포함한, 음악, 무용, 연극, 곡예, 민속놀이 등의 연행예능을 복합적으로 한데 묶은 무대공연이었음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산대놀이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고려의 산대놀이는 조선조에 계승되어 더욱 성행하였다. 한편 애초에 산대를 설치하고 놀지 않았던 궁중의 나례(儼禮)는 고려 예종 이후 점차 본격적으로 연행예능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데, 이렇게 잡귀(雜鬼)를 쫓는 연중행사는 역시 조선조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종래의 산대놀이와 혼용되어 채봉나례(綵棚儺禮), 산대나례(山臺儺禮)로 불릴 정도로 무대적인 공연성이 확장되었다.

조선조의 산대놀이는 규식지희(規式之戲)와 소학지희(笑謔之戲)로 분류되었다. 산대놀이는 한자어로 산대희(山臺戲), 산대잡희(山臺雜戲), 산대도감희(山臺都監戲), 산대나희(山臺儺戲), 나희(儺戲) 등으로 불리었는데, 주로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공연되었으며, 그밖에 나례의식 때,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왕이 종묘에서 제사지낼 때, 왕이 종묘에 참배할 때, 왕의 각종 행사 때, 왕후의 잉태를 축하할 때, 각종 궁중 잔치 때, 지방장관을 환영할 때 등에 공연되었다.

규식지희라 부르는 놀이에는 줄타기(注叱), 방울받기(弄鈴), 곤두박질(斤頭), 불뿔기(吐火), 탈춤의 일종인 만연어용지희(曼衍魚龍之戲), 무동춤, 곰놀이, 섭독교(攝獨橋), 꼭두놀음, 솟대놀이(長竿戲), 사자춤, 호랑이춤, 만석중춤 등의 곡예와 각종 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소학지희라 부르는 놀이는 남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던 고려조의 조희(調熙)의 전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흥적인 재담이나 화술(話術)로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연출해 보이는 일종의 소극(笑劇)이었다. 이와 같은 놀이의 실례로는 탐관오리의 행패와 향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꾸며서 보여주거나, 서민들이 병고로 시달리는 모습과 흉년이 들어 서민들이 굶주리는 것을 구제하는 과정, 혹은 양반들의 횡포와 비행 등을 극화시켜 보인 것을 들 수 있다. 『왕조실록』에 수척(水尺) 승광대(僧廣大)등이 소학지희를 하였다”는 기록은 단편적인 것이나 주목된다. 우리 역사에서 수척(水尺)은 여러 가지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산대의 놀이꾼(優人)을 지칭함이 분명한데, 그들과 함께 중광대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른바 산대탈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놀이(파계승 놀이)는 어떤 형태로든 중광대의 극중역할과 관련을 지녀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실마리의 하나가 이상의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산대놀이를 일명 산대도감놀이라 한 것은 궁중에 놀이를 관장하는 부서인 산대도감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나례를 거행하기 위해 나례도감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던 산대놀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조(仁祖)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산대에 관한 기록은 정조(正祖)때까지는

몇 차례 보이기는 하나, 이미 종래의 산대와 같은 궁중놀이로서는 그 명맥을 잇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연극에는 산희(山戲)와 야희(野戲)의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에 소속된다. 산희는 다락을 메고 포장을 치고 하는데 사자, 호랑이, 만석중 등의 춤을 추며, 야희는 당녀(唐女)와 소매(小梅)로 분장하고 논다”는 유득공(柳得恭)의 기록은 때마침 산대놀이가 사라져 가던 정조 때의 언급이자 종래의 놀이를 연극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왕조실록』에도 산대를 설치하지 않고 마당에서 그대로 창우(倡優)들이 고사(故事) 등 각종의 놀이를 공연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역시 야외놀이화의 실증자료로 여겨진다.

1872년에 기술한 『교방제보(敎坊諸譜)』에는 육화대(六花隊)이외 14종의 춤 속에 승무(僧舞)가 들어 있고, 잡희(雜戲) 가운데 초라니(焦爛), 산대(山臺), 취승(醉僧)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승무의 내용을 보면 기생을 사이에 두고 노승과 한량(風流郎)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각기 기생을 비단신으로 유혹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된다. 상좌(上座)도 등장하여 노승을 돕는다. 초라니는 가면을 쓰고 노는 잡희이고, 산대는 양반, 중, 미녀 등이 역시 가면을 쓰고 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취승은 격렬한 춤을 추며 논다. 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중광대, 당녀와 소매, 승무, 초라니, 산대, 취승 등의 놀이를 야외 놀이와 관련시키고, 다시 현전하는 산대탈놀이와 연계시켜 보면, 18세기 중엽이래 본격적인 연행예능으로 성숙된 이른바 산대계통 탈놀이의 모습을 대강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산대놀이꾼들은 궁중에서 천한 일을 하던 하층민으로 반인(泮人)이라 칭하였는데 상인(常人)과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그들은 산대도감 또는 나례도감에 예속되어 국가로부터 쌀이나 콩 등을 지급 받아 왔으나 공의(公儀)로서 산대놀이가 폐지됨으로써, 그 이후는 그들 자신의 연희의 흥행에 주력하게 되었고 커다란 무대(산대)를 만드는 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놀이패의 비용은 지방 유지들의 기부에 의존하였는데, 그들은 소위 계방(契房)이라 칭하는, 백성들이 공역(公役)의 면제나 기타 원조를 구하기 위해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금전이나 재물을 바치는 풍속을 이용해서, 봄에는 매미무늬도장(蟬印)과 가을에는 호랑이무늬도장(虎印)을 찍은 조합(組合)의 증명서를 들고 다니며 연2회 선착장이나 시장, 상가 등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산대놀이꾼들의 주거지는 사직골, 남대문 밖의 큰고개, 서소문 밖의 애오개, 녹번리,

구과발 등지였다. 공의(公儀)가 있을 때에는 궁중에 들어가 연희하였는데, 산대놀이가 폐지되자 각자의 주거지를 근거로 분산하여 새로이 놀이패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조 후기에 한양과 경기 일원에서 활약한 놀이패가 녹번리산대, 애오개산대, 사직골딱딱이패, 노량진산대, 퇴계원산대 등이다. 이들은 경향 각지를 순회 공연하였다.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백중, 팔월 추석과 대소 명절 때 흥행요청에 의하여 혹은 단독으로 또는 사당패나 다른 놀이패와 어울려 서민들의 흥을 돋우며, 일면으로는 점증하는 민중들의 사회의식을 표현하면서 밑바닥 인생으로 어렵게 생존하였다. 이들 중 특히 구과발산대는 1920년대 말엽까지 놀이본의 채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전승이 끊이지 않았고, 노량진산대는 1930년대 초에 복원되어 일시적으로 논 적도 있었다.